

정진학원 주간 보고

2015.12.15.(Tue)~2015.12.21.(Mon)

김태근

I. 진도 현황

1) 교재 목록

학년	교재 목록	
중3	내신	개념서 : 메시지 중학수학 3-1 (구매완료)
고1	선행	개념서 : 셀파 해법수학 수학1 문제집 : 수력충전 고등수학1
고2	선행	개념서 : 개념유형 미적분1 (분배완료)
고3	통계 (현우)	문제집 : 메시지 확률과 통계 (구매완료)
	미적분	문제집 : 자이스토리 미적분1
	미적분2 (한수)	개념서 : 개념유형 미적분2 (분배완료)

※비고사항 : • 고3 미적분2문제집은 한수1권, 교사용1권 필요.

• 앞으로 진행할 물리 교재와 고3 추가적인 교재는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해서 구매요청 하겠음.

2) 한 주간 진도 진행상황

학년	주간 진도	
중2	내신	
중3	선행	I. 다항식 - 3. 인수분해
고1	문제집	
고2	통계	
	기하와 벡터	
	특강	

※ 비고사항 : • 시험기간 종료.

Ⅱ. 태도 평가

학년	이름	결석	숙제불이행	수업 이해도	교재 미준비	계 : 종합태도점수
중2	김동주	0	0	4	0	88
	장가영	0	0	2	0	64
	홍선민	0	0	5	0	100
중3	김동현	1	1	4	0	78
	김정옥	1	1	2	0	54
	김주희	1	0	5	0	95
	김찬중	3	-	-	-	-
	윤선영	1	0	5	0	95
	손예진	1	0	5	0	95
고1	김미연	0	0	5	0	100
	김민영	0	0	2	0	64
	안상호	0	0	5	0	100
고2	김현우	0	0	5	0	100
	장한수	0	0	5	1	95

- ※ 비교사항 : • 결석, 숙제불이행, 교재미준비의 단위는 (회), 수업이해도는 5점이 만점.
- 데이터는 12.15부터 12.21까지의 결과. (화요일 ~ 월요일)
 - 수업 이해도는 수업 태도와 비례하는데다가 태도가 좋지 않으면 이해도를 감점하였음.
(즉, 수업태도는 수업이해도에 반영되어 있음.)
 - 종합태도점수는 $40 + 12 \times \text{이해도} - 5 \times (\text{결석} + \text{숙제} + \text{교재})$ 로 책정하였음.
 - 10점 초과 변동학생 : 없음
 - 중2, 고1, 고2 모두 시험기간 종료.
 - 중3은 진도를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고, 수업참여도도 높음.
 - 시험기간이 종료되어 중2, 고1, 고2의 경우 정식 수업이 없었음.

Ⅲ. 향후일정

- 2015.01.04.(월) - 학원방학

Ⅳ. 그 외 비교사항 및 제안사항.

- 계절학기의 이유로 학원 수업시간은 1월 18일 까지는 항상 2시 이후가 될 듯함.
- 물리강의가 결정되었으므로 고1의 경우 수학은 월 1시간 목 2시간 정도로 진행하고 대신 화요일에 과학 2시간을 넣는 시간표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고로, 시행한다면 화, 목은 월요일보다 1시간 연장수업이 진행되게 됨. 이런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화, 목요일에 고3 영어를 배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초, 중등부 시간표를 알 수 없어 조심스럽지만, 1시쯤부터 고1 영어를 먼저 하고 다음으로 중3, 고3 영어를 하게 되면 4시 35분에 중, 고등부 영어 강의는 끝나고 따라서 이후로는 고3 수학과 물리만 하면 된다. 이를 반영한다면, 월요일에도 혼선을 빚지 않게 고3을 고2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 중3 80분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2시부터 시작임을 고려하고 위의 제안사항이 반영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월요일(정상수업): 2시 ~ 3시 20분, 3시 25분 ~ 4시 35분, 4시 40분 ~ 5시 50분, 5시 55분 ~ 7시 5분. 화, 목(연장수업): 2시 ~ 3시 20분, 3시 25분 ~ 4시 35분, 4시 40분 ~ 5시 50분, 5시 55분 ~ 8시가 됨.

이를 반영한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월	화	수	목	금
9시	계절학기	계절학기	계절학기	계절학기	계절학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고1 수학	고1 수학		고1 수학	
3시	중3 수학	중3 수학		중3 수학	
4시	고3 수학	고3 수학		고3 수학	
5시					
6시	고2 수학	물리		고2 수학	
7시					

V. 학생별 평가자료.

: 학생별 평가는 자칫 심히 주관적이 될 수 있으므로 평가영역이 수학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몇몇 객관적 지표와 간단한 서술식 평가를 이용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객관적 지표 7개는 다음과 같다.

• 출결 • 숙제이행 • 수업참여도 • 개념이해능력 • 문제풀이능력 • 창의적사고력 • 평균태도점수

데이터는 평가가 시작된 2015.10.26.부터 2015.12.21. 까지의 9주간의 데이터를 참조하였다.

0. 전체 데이터

이름	출결	숙제이행	수업참여도	개념이해능력	문제풀이능력	창의적사고력	평균태도점수
김동주	-3	-9	4	7	6	7	71.86
장가영	0	-4	6	4	2	1	78.88
홍선민	-8	-12	7	7	7	5	73.14
김동현	-2	-6	6	7	8	8	81.56
김정욱	0	-8	3	1	3	4	58.44
김주희	-3	-5	10	9	10	9	92.56
윤선영	0	-6	8	8	8	5	87.00
손예진	-1	-1	10	10	9	10	97.78
김미연	-3	-3	10	10	9	9	95.00
김민영	-1	-13	3	2	2	2	56.00
안상호	-2	-5	8	9	8	9	93.50
김현우	-4	-1	10	10	9	10	96.88
장한수	-1	-2	10	8	8	7	90.63

1. 김동주

: 출결은 양호하나 숙제를 자주 안 해오며 수업시간의 참여도가 중학교 2학년 중 가장 저조하다. 학생들 중 가장 태도의 변동이 심한 편이다. 어떤 날은 집중을 아주 잘하는 반면, 어떤 날은 아예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9주간의 평균 태도점수는 72점인데 최고점이 88점이고 최저점은 37점임은 이를 잘 뒷받쳐준다. 기본적으로 수업 이해도는 괜찮은 편이고 문제도 창의적으로 잘 푸는 편이지만 복습의 부족으로 항상 앞의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꾸준한 복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성적은 충분히 급격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2. 장가영

: 무단결석이 0으로 가장 성실히 학원에 등원하였다. 덕분에 친구들이 안 왔을 때, 숙제를 할 기회가 많아 숙제점수도 양호한 편이다. 기본적으로 수업참여도 꽤 하는 편이지만 그동안 공부를 아예 안한 탓에 개념이해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게다가 복습도 전혀 하지 않아, 그 다음시간에 문제풀이를 할 때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이는 학교 시험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바이고, 따라서 시험 점수는 거의 최악으로 나온다. 기본적인 공부량이 부족한 탓에 창의적사고력은 검증자체가 불가능하여 점수는 낮게 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독려해야 할 것이다.

3. 홍선민

: 선민이는 항상 시험기간 이전에 잦은 결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따라서 도형 중간부분을 통째로 건너뛰는 일이 벌어졌다. 결석이 많았으므로 당연히 숙제이행점수는 떨어지는데, 결석을 하지 않더라도 숙제를 잘 안해오는 경향이 있다. 수업에 참여는 열심히 하는 편이며, 개념이해도도 높다. 또한 어떠한 유형의 문제를 알려주면 다음에 적어도 그 유형의 문제는 틀리지 않을 만큼, 문제풀이능력과 암기력도 상당하다. 그러나 역시 복습의 부족으로 이러한 기억은 기껏해야 1~2주를 넘지 못한다. 앞의 두 명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공부가 요구된다.

4. 김동현

: 출결점수는 의외로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역시 숙제를 자주 안 해오는 경향을 보여준다. 수업참여도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데, 보통 시험기간 직전에는 수업참여도가 되게 높은 반면, 시험이 끝나면 급격히 나태해진다. 집중할 때에는 개념 이해도가 높은 편이고 문제풀이능력도 상당하다. 또한, 잔머리가 발달한 탓에 수학문제에 대하여 가끔 색다른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 창의적사고력은 꽤 보유한 편이다. 따라서 평상시에 수업에 집중을 잘 하게하고 숙제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한다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5. 김정욱

: 출결은 중3중에 가장 양호하다. 그러나 숙제는 거의 절대로 안 해오는 편이다. 평상시 수업에 전혀 관심이 없어 수업 시간엔 그저 앉아있기만 한다. 따라서 개념이해도나 문제풀이능력은 최저를 달릴 수밖에 없다. 남겨서 숙제를 시키기에도 애매한데,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았으니 아는 것이 없어 혼자서 숙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전반적으로 전혀 공부에 대해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갑자기 어떤 일을 계기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한, 외부에서 아무리 공부를 시킨다고 해도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6. 김주희

: 출결도 양호하고 가끔 숙제를 잊어버려서 안 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한 편이다. 상위권 학생 중에서는 개념을 이해하는 속도가 살짝 느린 편인데, 그만큼 한번 이해하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 편이다. 예진이와 함께 수업참여도는 월등하며 특히 문제 푸는 기술이 탁월하다. 다만, 문제를 풀 때, 창의적인 면모가 살짝 약한데 이는 어려운 문제들에 도전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조금 더 터득하면 상당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7. 윤선영

: 정욱이와 함께 출결은 가장 양호하다. 다만, 숙제범위를 잇는 등의 이유로 숙제이행도는 꽤 낮다. 수업시간의 이해지표를 선영이로 삼아 자주 문제풀이를 시켜 수업참여도는 반강제적으로 높은 편이다. 수업을 따라오려는 의지가 있으며 질문도 처음보다는 많이 하게 되었다. 다만, 예진이나 주희에 비해 기본 지식이 얇은 편이라 이해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 또한, 여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율학습이 부족하여 시험성적은 이해도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꾸준히 공부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며, 집에서 매일 일정시간동안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8. 손예진

: 출결과 숙제이행정도만 봐도 알다시피 가장 성실한 학생이다. 수업참여도도 매우 높고 질문도 가장 활발하게 한다. 개념이해도도 매우 높으며 문제도 곧잘 풀 정도로 문제풀이능력도 상당하다. 또한, 가르쳐준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을 찾는 등 창의적사고력도 탁월한 편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잡혀있지 않아 공부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 후 차근차근 고쳐나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풀이에 있어서 개념을 응용하는 면에서 2%정도 부족한데, 이는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풀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9. 김미연

: 출결, 숙제, 수업참여도, 개념이해도, 문제풀이능력 다 양호한 전형적인 모범생이다. 처음 왔을 때는 수동적인 공부태도를 취했으나 현재는 질문도 자주하고 수학 수업에 국한되지 않고 학습방법이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실제로 저번 중간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대폭 (100등) 올랐고 이번 시험에서는 전과목의 성적이 모두 오르는 등 확실한 학업성취가 가시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 문제점은 문제를 너무 적게 푸는 것인데, 이는 언젠가 갑자기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방학부터 그 점은 고쳐나 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약한 과목이 영어인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인 지금, 그에 대한 대안이 준비돼야 할 것이다.

10. 김민영

: 중간고사 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공부를 했지만,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아예 공부에 손을 대지 않았다. 아마 주변 친구들과, 박약한 의지, 이제 완전히 어려워진 수학이 그 원인일 것이다. 모든 학생 중에 가장 문제가 큰 학생이다. 이제 미적분1을 나가는 지금도 여전히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수업준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일단은 먼저 동기부여가 되어야 다음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11. 안상호

: 출결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숙제이행정도가 떨어지고 있다. 개념이해도는 뛰어나나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탓에 문제풀이능력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기말고사 이후부터는 수업시간에도 약간의 잡담을 하는 등 크게 집중하지 못하는 편이다. 이는 진도를 나가다 보면 고쳐질 문제이니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듯하고 수학과 과학에 기본적으로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라 앞으로 과학강의도 진행하게 되면 공부에 조금 더 열의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12. 김현우

: 출결, 숙제, 수업참여도, 개념이해도, 풀이능력, 창의적사고력 등등 다 매우 뛰어난 편이다. 그러나 근래 모의고사 문제들을 접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을 거의 잊어버려 난이도 있는 연계문제들에 대해 매우 약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방학 중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1을 빠르게 복습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상시의 공부량이 예비 고3 치고는 매우 적음을 감안하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학습량이 요구된다.

13. 장한수

: 출결, 숙제, 수업참여도는 준수하나 상대적으로 배경지식이 얇은 탓에 이해도는 살짝 떨어지는 편이다. 이는 현우와 마찬가지로 방학 때 뿌리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시간에 꽤 많이 조는 편인데 이는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이다. 그 외에 고3 이과 치고는 너무나도 적은 공부량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는 방학동안 수학, 영어 그리고 고2 학생들과 함께 수강하는 물리 강의와 숙제로 어느 정도 기틀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시험기간에만 가는 독서실을 평일에도 가게끔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Ⅶ. 교재비용.

- 중3: 동주, 가영, 선민 - 배송 중
- 고2: 미연, 민영, 상호 - 개념유형 미적분1 (15000원)
- 고3: 현우 - 메시지 확률과통계 (11500원)/ 한수 - 개념유형 미적분2 (15000원)

(여기에 추가로 현우와 한수는 수학1 교재를 하나 더 살 예정이고 미연, 상호, 한수는 물리 교재를 하나 더 구매할 예정이다.)